

“대한민국의 힘으로 비상하는 힘센충남”

김태흠 제39대 충남도지사 취임
“충남 현안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
국가 성장과 발전 이끌어 나갈 것”

베이 밸리 메가시티 ‘1호 결재’
천안·아산 등 권역별 5대 전략
지역 불균형 해소 균형발전 집중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7월 1일 취임
일성으로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충
남의 새 역사를 힘차게 만들어 나가
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충청남도청 문예
회관에서 진행된 제39대 충남도지사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렇게 밝
혔다.

김 지사는 이날 취임사에서 “도정
의 비전은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다. 충남의 도전과제를 강한 추
진력으로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으로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
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며 “충남은
이 담대한 비전 아래 5대 목표를 강
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정의 5대 목표는 ▲힘차게 성장
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가치있
고 품격있는 삶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등이다.

김 지사는 우선 “‘힘차게 성장하
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반도체·디
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2차전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탄
소중립 경제특별도로 선포해 탄소중
립경제를 선도하며, 교통망과 물류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이루겠다고 “지속가능한 성
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지역 불
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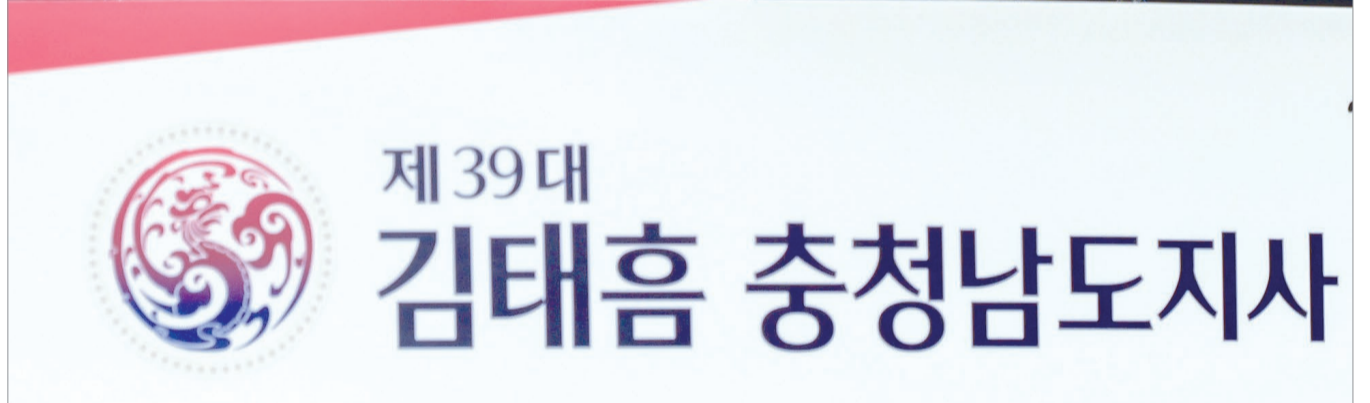
이를 위해 ▲천안·아산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조성 ▲서해안 지역 국
제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홍성·예
산 내포 혁신도시 완성 ▲공주·부여·
청양 문화명품 관광도시 육성 ▲계
룡·논산·금산 국방 특화 클러스터 발
전 등을 추진한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선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복지망 접근성 강화 ▲균등한
보육환경 조성 ▲어르신 노후 빈곤
예방 및 생산적 복지 실현 ▲초등돌
봄체계 확립 ▲돌봄 공공성 강화 ▲
장애인·경력단절여성·탈북민·다문화
가족·위기 청소년 지원 확대 ▲사각
지대 없는 의료체계 구축 등을 추진
한다.

이와 함께 백제문화 복합단지 조성
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충남관광공
사 설립, 의병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
해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을 실현
하고, 출자·출연기관을 도민에게 개
방하고 데이터 기반 디지털 지방정
부를 구현해 ‘우리 뜻이 통하는 충
남’을 만든다.

김 지사는 “인생의 좌우명은 ‘사생
취의’이고, 행동가치는 ‘선공후사’이
다. 올바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도지사가 되겠
다”며 “똥심으로 ‘힘센충남’을 구현
하고,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
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도내 노인, 장애
인, 농어업인, 경제인, 다문화가정, 의



취임 선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7월 1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39대 충청남도지사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맹철영

료인, 여성, 청년 등 도민과 기관단체
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에 앞서 김 지사는 내포신도
시에 위치한 보훈공원 충훈탑을 찾아
참배하고, 도청 집무실로 이동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전형식 정무부지사에게 임용
장을 수여하고, ‘1호 결재’로 ‘베이
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에 서
명했다.

/운영지원과 041-635-3502
/김정원 jwkim87@korea.kr

지면안내

취임사 전문	2면
민선8기 도정 출범	3면
1호 결재	4면
제12대 충남도의회 개원	15면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민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도민 염원을 받들어 충남의 새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취임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7월 1일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제39대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취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충남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충남의 높은 잠재력을 실현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하여 민선 8기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저 김태흠,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220만 도민의 의지를 받들어 충남의 힘찬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흠 도정의 비전은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충남의 도전과제를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핵심으로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충남은 이 담대한 비전 아래 5대 목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읽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 2차 전지 등 미래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로 선포하여 에너지 전환은 물론 실질적인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의 토대인 교통망과 물류 인프라도 혁신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GTX-C 천안·아산 연장과 충청내륙 철도 건설, 서산공항 건설과 다목적 보령 신항 조기 완공 등 인적·물적 교류 협력의 기반을 확실히 다

지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충청지방은행 설립, 충남신용보증재단 확대 등을 통해 지역금융도 활성화하겠습니다.

50년 비전으로 충남의 경제산업 지도를 새로 쓰고,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둘째,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지역 불균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으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천안·아산은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국제해양 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홍성·예산은 자연된 내포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공주·부여·청양은 문화명품 관광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계룡·논산·금산은 국방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주역인 미래산업 인재도 키워나갈 것입니다. 대학과 기업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여 4차산업과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충남형 미래인재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은퇴 농어민 정년제와 농어촌 주거공간 재정비 사업으로 젊고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들겠습니다.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등 해양신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장과 특색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을 통해 충남을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위험과 불안이 상존하는 사회입니다.

보육과 의료, 노후와 일상에 대한 불안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사회 복지망의 접근성을 높이고, 균등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워킹맘을 위한 초등돌봄체계를 확립하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키즈파크 등을 조성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탈북민, 다문화 가족, 위기 청소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가겠습니다.

4대 의료원 기능 특화,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넷째,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넘어 문화적으로 성숙한 사회, 제가 꿈꾸는 충남입니다.

모든 도민이 문화예술·체육·관광을 공정하게 누리도록 하여 그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백제문화 복합단지 조성하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충남관광공사 설립과 의병기념관 건립을 통해 충남의 역사·문화·관광을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을 위한 체육시설을 구축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체육활동의 저변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 체육의 시선으로 충남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충남의 브랜드 가치와 도민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을 실현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정의 존재 이유는 도민입니다.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충남 남부출장소를 설치하여 도민행정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도민에게 개방하고 충남인재개발원 공공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힘센충남’의 강한 추진력은 참여와 소통, 그리고 디지털 행정에서 나옵니다.

행정조직을 혁신하여 자율과 책임의 도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도청 설치, 충남데이터센터 신설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방정부도 구현하겠습니다. 압도적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힘센충남’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강한 경제, 지역 균형발전, 따뜻한 공동체, 품격있는 사회, 그리고 디지털 행정 혁신은 김태흠 도정의 5대 도정 목표입니다.

저는 이를 충남발전의 강한 엔진으로 삼아 ‘힘센충남’을 실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은 사생취의이고, 행동가치는 선공후사입니다.

올바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충남의 해결사로서 충남에 큰일을 이루기 위해, 충남도민의 행복을 위해, 저의 모든 능력과 경험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독심으로 ‘힘센충남’을 구현하고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위대한 도민의 손을 꼭 붙잡고 충남의 새 역사를 힘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당일(1일) 일정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일 취임식에 앞서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분향을 하고 있다.



충남도청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도청 집무실에서 ‘호 결제’를 하고 있다.

“국민 모두 살고 싶은 충남··지역 균형발전 힘 모은다”

민선8기 충남도정 출범

경제 등 5대 목표 20개 전략

100일 중점과제 34개 선정

일자리 창출 등 획기적 경제 성장

지역 주도 발전, 따뜻한 공동체

도민 품격 높이고 디지털행정 혁신

균형발전 ‘초점’ 권역별 전략 제시

천안·아산 디지털 수도 만들고

홍성·예산 내포혁신도시 완성

220만 충남도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쓸 ‘힘센충남’이 힘찬 첫 발을 뗐다. 충남도는 획기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주도하고, 따뜻하면서도 품격있는 삶,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7월 1일 취임사는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충남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는 시대적 소명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힘센충남’ 구현과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정’을 강조한다. 민선8기 충남도정 비전과 목표, 전략 등 운영 방향을 살펴본다.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민선8기 도정 비전은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다. 주요 현안 및 과제를 도민의 의지를 담아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충남도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의 지향점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도 균형발전, 품격있는 삶의 질, 일 잘하는 지방정부 등이다.

도는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등 5대 목표를 정하고, 이를 뒷받침 할 20대 전략을 선정했다. 또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아 권역별 5대 전략을 수립했다. 권역별 5대 전략은 ▲천안·아산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홍성·예산 ‘내포혁신도시 완성’ ▲공주·부여·청양 ‘문화명품 관광도시’ ▲계룡·논산·금산 ‘국방특화 클러스터’ 등이다. 이를 위한 도정 과정

는 162개이며, 세부 사업은 공약 130개와 역점 66개 등 총 196개이다.

100일 내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선포

도는 5대 목표별 100일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100일 중점 과제는 ▲AI 기반 미래차 산업 허브 육성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M버스 노선 신설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충남신용보증재단 확대 ▲천안·공주·논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베이 밸리 메가시티 건설 ▲백제문화 복합단지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내포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국방산업단지 육성 ▲기업-대학 상생협력체계 구축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추진 ▲도민 국제화 역량 제고 ▲스마트 팜 단지화, 돈 되는 미래형 농어업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섬 주민 이동권 확대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충남형 리브투게더 구축 등 34개이다. 도는 민선8기 출범 100일 이내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베이 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포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또는 로드맵 발표 등을 진행한다.

충남형 리브투게더 구축

도는 지역 균형발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15개 시군 특성을 살리고 지역발전을 스스로 견인할 수 있는 성장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특색 살린 균형발전, 지역과 상생하는 인재 양성, 농어업의 스타트 미래성장산업화, 해양관광·신산업 육성,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등 전략도 내놔다. 이중 베이 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충남형 리브투게더 구축 사업이 눈에 띈다. 특히 베이 밸리 메가시티는 ‘1호 결재’로,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한다는 민선8기 핵심 과제이다. 이를 위해 ▲아산만 씨클형(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신설 ▲천안(중죽장 부지 등) 대규모 최첨단 국가산단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충남형 리브투게더 구축사업을 펴다. 도시와 농어촌 특성을 활용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도시의 경우 노인·청년·신혼부부 수요 맞춤형 단지를 조성하고, 농촌은 면 소재지 중심으로 공공주택 등 주거공간을, 어촌은 귀어귀촌 초기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귀어인의 집을 조성한다.

/김정원 jwkim87@korea.kr

민선8기 도정

비전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5대 목표

1	2	3	4	5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1 미래전략산업 육성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	늘 곁에 있는 사회복지망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관광 진흥	참여와 소통의 열린도정
2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	지역과 상생하는 인재 양성	균등한 보육환경 조성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자율과 책임의 혁신도정
3 혁신적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 성장 산업화	사각지대 없는 지역 의료체계 구축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방정부 구현
4 든든한 시장 지원	해양 관광·신산업 육성	도민 안심 안전체계 구축	자연 생태회복력 복원	
5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권역별 5대 전략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천안·아산)	국제해양 레저관광벨트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내포 혁신도시 완성 (홍성·예산)	문화명품 관광도시 (공주·부여·청양)	국방특화 클러스터 (계룡·논산·금산)
------------------------	---------------------------------	-----------------------	-------------------------	-------------------------

제39대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약력

1963년 충남 보령군 웅천면 수부리에서 출생, 수부국민학교, 웅천중학교, 공주고등학교를 졸업, 상경해 건국대학교에 진학했다.

대학 시절인 1987년 ‘새시대국청년단’ 결성을 통해 정치의 영역에 발을 디딘 것을 계기로,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김용환 국회의원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 6년간 보좌했으며, 자유민주연합 의원부장으로 2년 6개월 동안 원내 행정 및 국회 운영 경험을 쌓았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국무총리실 공보과장, 정부비서관, 정책담당관을 거치면서 풍부한 인맥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부처와 국회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했다.

2006년에는 도정 사상 최초로 40대 젊은 정무부지사로 취임, 1년 2개월 동안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 개최, 보령해저터널 재추진, 보령관광산업단지 활성화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후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21대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화력발전소 지역지원시설 2배 인상, 장항국가산업단지 활성화, 국도 21호·36호 조기 완공, 장항선복선전철화를 비롯한 각종 SOC 확충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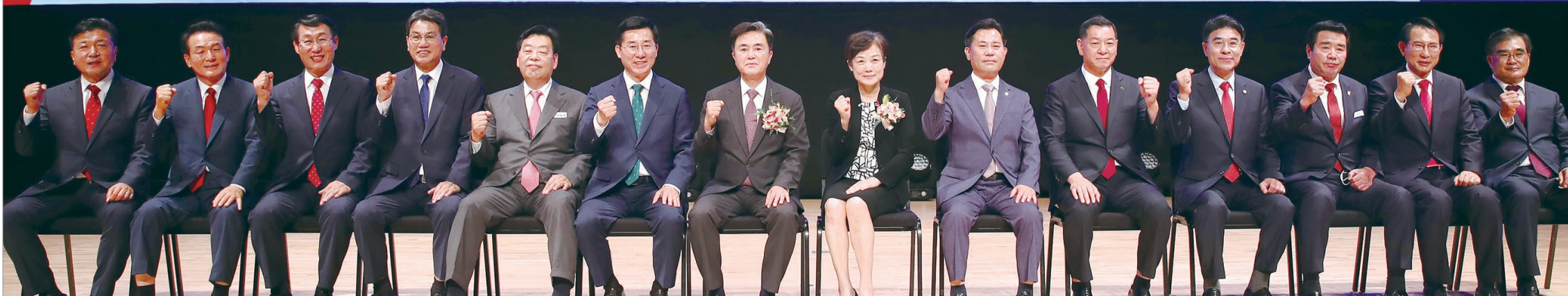
2022년 6월 1일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아 당선, 7월 1일 제39대 충청남도지사에 취임했다.



제39대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취임식

The 39th KIM TAEHUEM Chungcheongnamdo Governor Inauguration Ceremony

2022. 7. 1. 충남도청 문예회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7월 1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39대 충남도지사 취임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맹철영

김태흠號 1호 결재 ‘베이 밸리 메가시티 건설’

아산만 일대 경제발전 거점 육성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신설
8월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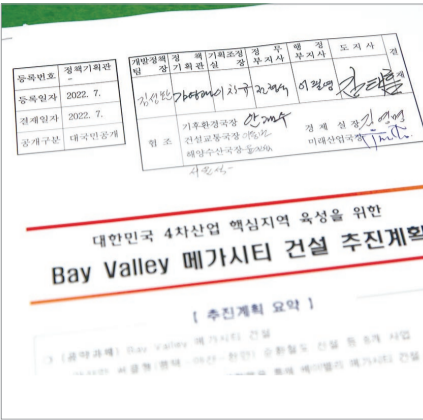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임기 첫 결재로 ‘베이 밸리 메가시티 건설’ 계획을 선택, 충남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 견인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7월 1일 도청 집무실에서 ‘1호 결재’로 ‘베이 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에 서명했다.

베이 밸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한다는 민선 8기 핵심 과제다.

추진 방향은 ▲아산만권 대한민국 경제 발전 거점 육성 ▲국가 발전 및 지역 상생발전 기틀 마련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유도 등으로 잡았다.

베이 밸리 메가시티 성공 추진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는 ▲아산만 씨클링(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신설 ▲천안(중축장 부지 등) 대규모 최첨단



1호 결재한 보고서

국가산단 조성 ▲당진평택국제항 물류 환경 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환경해경제자유구역청 복원과 민관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내놔다.

또 ▲아산 대부도~보령 해저터널 간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 조성 ▲한강수계 충남 서북부권 용수 이용 협력 ▲아산시 둔포면 일부 평택지원법 적용 등도 세부 사업에 포함,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베이 밸리 메가시티를 속도감 있게 건설하기 위해 TF와 민관 합동 추진단도 구성한다.

TF는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정책기획관, 경제·기업·건설·해양 분

야 담당 과장,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으로 꾸리고, 이달부터 가동한다.

주요 역할은 베이 밸리 메가시티 건설 협력, 부서별 세부 사업 추진, 시도 협력 공동 대응 등이다.

민관 합동 추진단은 아산만권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및 공약 세부 과제 관련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3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도 행정부지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단장을 맡고, 기획지원·산업경제·국토해양·대외협력 등 4개 분과 아래 도 관련 부서와 경제·시민사회단체·전문가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다음 달 중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 가동할 계획이며, 주요 역할은 아산만권 발전 방향과 공약 사업 추진 지원, 정부·국회·지자체·관계기관 등 대외 협력, 아산만권 개발 여론 수렴 및 홍보 등이다.

김태흠 지사는 “아산만권 일대는 인구 330만 명,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 지역내총생산(GRDP) 204조 원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풍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기업이 다수 존재해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다”라며 “경기도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베이 밸리 메가시티를 조속하게 완성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책기획관 041-635-3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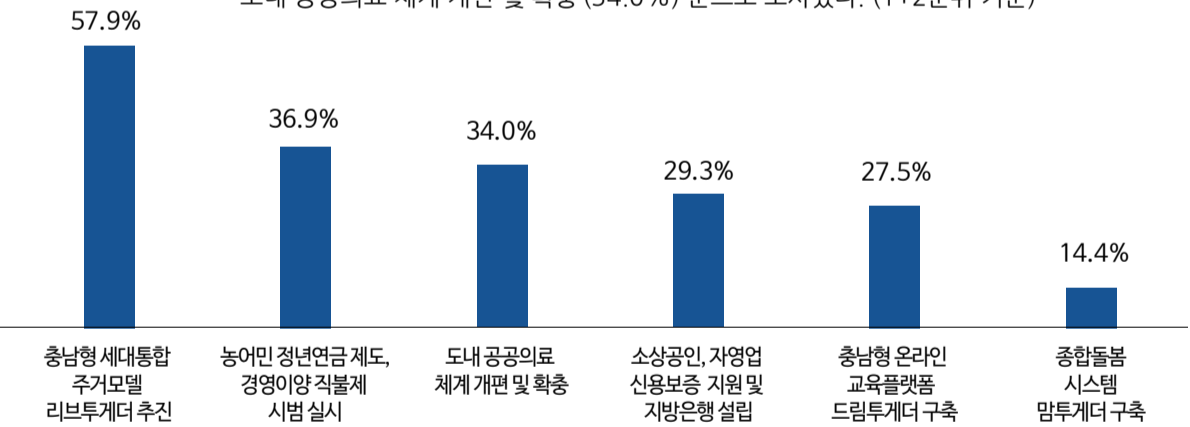


민선8기 출범 충남도민들이 바라는 공약

- ◆조사시기 : 2022.6.25 ~ 6.27 ◆조사대상 : 만18세 이상 충남도민 1,000명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유·무선 RDD) ◆표본오차 : ±3.1%p(95% 신뢰수준)

도민들이 중시하는(우선시 하는) 공약은 무엇입니까?

■ 충남 전체 '충남형 세대통합 주거모델 리브투게더 추진'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5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어민 정년연금 제도, 경영이양 직불제 시범 실시'(36.9%), '도내 공공의료 체계 개편 및 확충'(34.0%) 순으로 조사됐다. (1+2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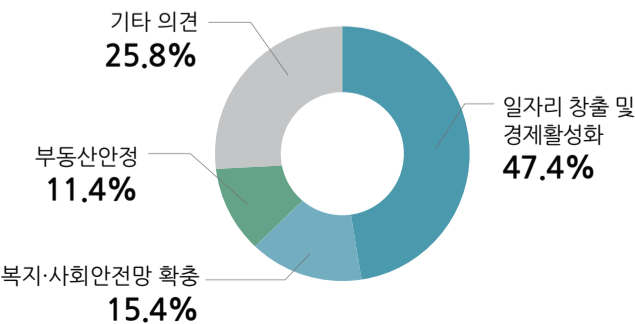


■ 지역별

- 천안·아산(1순위) : GTX-C 천안 아산 연장 및 M버스 천안역 연장
-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1순위) : 서해안 글로벌 해양레저 기반 구축
- 홍성·예산(1순위) : 의대신설 및 대학병원 유치
- 공주·부여·청양(1순위) :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마을조성
- 계룡·논산·금산(1순위) : '금산 인삼 약초산업진흥원' 국립 승격, 육군 사관학교 및 국방부 이전

충남도정 역점 추진과제로 무엇을 기대합니까?

도민 절반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주길 기대했다.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이라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사회안전망 확충'(15.4%), '부동산안정'(11.4%) 순으로 조사됐다.



도 정부부지사에 전형식 前 청장

정부 사업 유치·국비 확보 등 기대

전형식(사진) 충남도 정부부지사는 7월 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로 부터 임용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민선 8기 첫 정부부지사에 임용된 전 부지사는 기존 정부적인 역할과 함께, 중앙 부처와 가교 역할을 하며 정부 사업 유치, 지역 현안 해결, 정부 예산 확보 활동 등에 집중한다.

특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해경제자유구역청 복원을 비롯한 민선8기 핵심 과제인 '베이 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앞장서 추진한다.

전 부지사는 서천 출신으로 대전 동산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거쳐



행정고시(38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기재부 법사예산과장과 국고과장,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재정국장, 기재부 재정정산국장을 거쳐 2018년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했다.

민선8기 출범 100일 내 성과 가시화

김태흠 지사, 첫 실국원장회의 “내년 정부예산 확보 박차”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7월 4일 “역동적인 도정으로 민선8기 출범 100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민선 8기 첫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도정 비전을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으로 정한 것은 역동적으로 도정을 이끌고,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자는 의지를 담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100일 안에 가시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부분

을 내도록 하자”라며 “그래야만 도민 여러분들이 도정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어 지역 대학과 기업의 인력 순환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도 꺼냈다.

김 지사는 “도내 대학들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기업은 도내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이 충남에 머물 수 있는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기획관 041-635-3112

보령국제요트대회 100배 즐기기

7월 20~24일 대천 앞바다 개최
요트대회 해외 16개국 77명 참가
요트 전시·탐험 등 부대행사 운영

국내 첫 아시아요트연맹 공인 요트대회인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준비한다.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보령 요트경기장과 대천해수욕장 수역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에는 개최국 한국을 포함해 덴마크,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등 해외 16개국 77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 조직위는 경기 외에도 ▲보령 국제요트대회 홍보관 ▲서해바다 요트 탐험대 ▲지역 관광(리저브데이) 등을 운영해 참가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대회 시작 전인 7월 6일부터 8일 사이 서해바다 요트탐험대를 운영한다.

서해바다 요트탐험대는 공개 모집한 5명의 참가자와 요트를 타고 외연도와 격렬비열도를 탐방하는 행사로, 서해의 아름다운 섬을 알리는 동시에 세일링 로드를 개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의 전 과정을 담은 다큐멘

터리 촬영과 한국방송(KBS) 생생정보통 촬영을 함께 진행하여 7월 11일 방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기간인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박람회장에 보령국제요트대회 홍보관을 마련한다. 대회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요트 공중 모빌을 전시한다.

이번 대회는 7월 22일 오후 5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상설무대에서 선수단과 충남도지사 등 주요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열고 대회의 막을 올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국제요트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정책과 041-635-4774

충남도서관 평생교육 수강생 모집

7월 14일까지 11개 강좌 수강신청

충남도서관은 여름특강 평생교육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여름특강 강좌는 7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4주간 가족(유아 및 보호자), 아동, 성인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11개 강좌를 개설한다.

가족(유아 및 보호자) 대상 강의는 ▲엄마랑 음악놀이 ▲창의톡톡 미술놀이 2개이며, 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음악·미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아동 대상 강의는 ▲책이랑 놀아요 ▲동화로 배우는 영어 ▲발표력 쑥

쑥 스피치 교실 ▲생각 쑥쑥 독서는 술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독서, 논술, 영어, 발표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성인 대상 강의는 ▲스마트폰 활용하기 ▲수채화 캘리그래피 ▲펜드로잉 ▲대바늘 손뜨개이며, 중장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및 앱 활용 강좌를 개설해 도민 선택의 폭을 넓혔다.

수강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충남도서관 누리집(library.chungnam.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충남도서관 041-635-8068

금강자연휴양림, 탄소중립 숲해설 운영

전화 예약, 현장 방문 신청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금강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과 연계한 숲해설 교육을 운영한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의 중요성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담은 맞춤형 교재를

제작해 숲해설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숲해설은 전화 예약(☎041-635-7407) 및 현장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342



태안 천리포수목원의 여름

올해 한국관광공사 '안심 관광지'로 선정된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에 노루오줌, 미국 안개나무 등 다채롭고 독특한 식물이 꽃을 피워 여름 분위기를 한껏 자아내고 있다. 사진은 노루오줌, 햇불 모양으로 다양한 색상을 뽐내는 노루오줌은 국내 자생 식물로 뿌리에서 노루오줌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해 이름 붙여졌다.

/천리포수목원 제공

대전~금산 광역도로 연결 '박차'

도 종전소, 설계용역중간보고

13.9km 구간 중 10km 완료

충남 금산과 대전 이남 및 국도 17호선을 연결하는 13.9km 도로 구간 중 광역도로 10km 구간의 공사를 완료한 가

운데, 도 종합건설사업소가 최종 잔여구간의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 종합건설사업소는 최근 '복수~진산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용역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완공한 구간은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금산 복수면까지 10km 구간으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총 1700억 원을 투자해 왕복 4차로로 확·포장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13.9km 구간 중 남아있는 금산 복수면 백암리~곡남리 3.9k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2030년까지 1070억 원을 투입해 준공한다.

/도 종합건설사업소 041-635-7542

전국 최초 메타버스 회의실 구축

메타버스 가상회의공간 운영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온·오프라인 회의가 가능한 '메타버스 가상회의공간'을 구축·운영한다.

가상회의공간은 메타버스(소통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를 활용해 원격지에 서도 오프라인 회의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축된 공간이다.

이는 영상회의보다 한 차원 발전된

것으로, 소규모 참여자간 대화공간 지정, 휴게공간 등의 차별성을 갖췄다.

도 관계자는 "가상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지속 실시해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이라며 "가상회의 공간이 회의참석이 어려운 참여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화담당관 041-635-3723

엠지(MZ) 세대가 말하는 '청렴'

매주 화·목 청렴 아침 방송

충남도가 7월 5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전 업무시간 전에 청내 '청렴 아침 방송'을

진행한다.

올해 '나도 청렴에 대해 말하고 싶다'를 주제로 엠지(MZ) 세대 직원들이 참여해 다양한 청렴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청렴 아침 방송은 공직자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느낀 청렴 관련 이야기를 직접 동료들과 나누며 청렴 의식을 향상하는 것이다.

지난해 청렴 아침 방송에는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참여했다.

/감사위원회 041-635-5423

도내 유통 먹는 샘물 수질 '안전'

도, 22개 제품 임의 수질검사

충남도는 도내 11개 시군의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먹는 샘물(생수) 22

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검사한 22개 제품은 총대장군군 등 50개 수질검사 항목과 3개 수질감시 항목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도 관계자는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은 분기마다 지속 수거 검사할 예정이고 도내 운영 중인 먹는 샘물 제조업체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관리정책과 041-635-2733

농사는 '생명의 창고'이다.

대한의 청년, 윤봉길

윤봉길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
5) 「농민독본」을 편찬하다

윤봉길은 야학이 자리를 잡아가자 학생들을 가르칠 교재를 직접 쓰기로 하고 『농민독본』 3권을 만들었다. 제1권 '조선글편'에는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 맞춤법 등을 넣어 한글을 가르쳤다. 제2권 '계몽편'은 학생들이 가져야 할 지식과 마음 자세를 적었다. 새해와 회갑, 초상 때의 인사말과 편지의 예시문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격언과 속담도 소개하였다. 또한 전국 13도의 이름을 지도에 적어 조국 강산을 잊지 않도록 하였다. '백두산'장에서 백두산은 추운 바람을 막아주는 우리의 정신적 지주라면서, 학생들에게 2천만 고통의 참상을 가슴속 깊이 새겨 힘을 길러 이를 이겨낼 것을 호소하였다. 이 외에도 청년들에게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심을 품은 마케토니아의 알렉산더 기상을 본받자고 하면서도 그 야심이 인도적이 아님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제3권 '농민의 앞길편'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였다. 농민도 양반과 같이 자유로운 사람이라면서 인간의 평등을 내세웠다. 나아가 "머리에 돌이 놀리고 목에 쇠사슬이 걸린 사람은 자유를 잃은 사람"이라면서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 자유로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는 민중의 자유에서 나아진다"라고 집단적인



농민독본의 조선지도

자유운동을 주장하였다. 이외에 농민이 가져야 할 공동정신과 농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와같이 윤봉길은 『농민독본』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한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평등과 자유정신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자유는 누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동안 나라의 주인인 농민이 주인 대접을 못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게 살아왔다. 주인이 못살면 다른 사람도 못사는 법"이라면서 모든 힘을 농민에게 돌려야 한다고 하였다. 윤봉길은 '농사는 천하의大本'이라는 말이 결코 옛말이 아니라면서, 이 말은 억만년을 가더라도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이 상공업 국가가 되어 농업이 자취를 잃더라도 농사는 '생명의 창고'이며, 그 창고의 열쇠는 농민이 가지고 있다면서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기대했다.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하계유니버시아드 서명 100만 눈앞

충청권 유치 서명운동 전개
이달 중 100만 명 돌파 기대
실사단 방한 8~12일 현장점검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를 위한 국민의 열망이 하루가 다르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위원회)는 4일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유치를 위한 충청권 대회 유치를 열망하는 ‘100만 서명운동’의 서명자가 93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100만 서명운동은 7월 중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 달 집행위원 실사단 방한 시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열기는 7월 기술 점검을 위해 방문하는 실사단에게 먼저 닿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기술 점검 실사단은 8일 대전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세종, 보령, 천안, 아산, 청주, 충주 등 대회 주요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방문해 대회 시설 기준 충족 여부와 선수촌, 의전, 교통, 안전, 홍보 등 18개 분야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 뜨거운 열원에 힘입어 서명운동 3개월 만에 목표의 90%가 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서명 참여자 100만 명 달성을 이루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물론 향후 두 차례 예정된 국내 실사를 완벽하게 준비해 대회 유치를 이뤄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도시는 기술점검 실사단 방한 이후 다음 달 26일 현지실사를 거친 후 11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집행위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체육진흥과 041-635-3861

세계적 반도체 진공펌프 생산기업 새 등지

아산 탕정산단 외투지역 내
영국 에드워드 생산공장 신축

충남 아산 탕정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의 새 공장이 들어섰다.

6월 23일 아산 탕정일반산업단 외국인 투자지역 내에서 에드워드코리아 아산 탕정 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에드워드의 새 공장은 아산 탕정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내 3만 336㎡(1만 92평) 부지에 건립됐으며, 제품 생산을 위한 80여 대의 첨단 설비 등을 갖췄다.

주요 생산 품목은 반도체 제조공정용 진공펌프, 통합시스템 등이며, 새 공장 준공에 따른 신규 고용 인원은 1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드워드는 반도체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탕정 공장을 중심으로 반도체용 진공펌프 공급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에드워드는 영국 버지스힐에 본사를 둔 반도체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지난 2011년 진공펌프 국제적 생산기지를 한국으로 결정하고 충남 천안에 투자를 지속해 왔다.

/투자입지과 041-635-3385

갑질 없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한다

경비노동자 협의회 창립 기념식

충남도 내 공동주택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 창립 기념식’이 6월 30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렸다.

이번에 출범한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의 단합

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며, 경비 노동자를 위한 고용 안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4

창업 전문가 1대1 컨설팅

도내 여성 (예비)창업자 대상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충남광역세

일센터는 도내 여성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7월 28일까지 창업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팅은 도내 여성 (예비)창업자 총 28명에게 전문가 1대1 맞춤

컨설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내용은 SNS홍보마케팅 분야, 세무·회계 분야, 일반 경영 분야 등이다.

/충남일자리진흥원 041-330-4954

충남 유물, 왜 다른 지역에 있을까

국내외 충남 문화유산
다시보기

1)국내외 반출 충남문화유산의
현황과 과제

우리 충남지역에는 대한민국의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충남에 연고를 가진 문화유산이 해외 또는 국내 타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현재 해외로 나가있는 우리 문화재는 25개국에 214,208점으로 알려져있는데(22년 1월 기준/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 수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21만 여점의 유물 가운데는 충남 연고를 가진 문화재 또한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힘든 작업이 바로 특정 지역 연고를 가진 유물을 골라내는 것이다. 출토지 또는 산지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유물이 자신의 출신을 말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충남 연고 유물들은 그 출처나 반출 경로가 비교적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공주 출토), 일본의 한 개인이 소장중인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부여 출토) 등 국보·보물급 유물들이 그것이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자, 현재 국내 타 지역에 나가있는 충남 연고의 문화재는 도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몇 점의 유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현황과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비교적 잘 알려진 타 지역 소재 유물로는 천안 천흥사 동종(국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충청감영 측우기(국보, 국립기상박물관 소장) 등이 있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일본 도쿄국립박물관)

그렇다면 이 유물들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까? 물론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들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역사적 호기심을 채워주며,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문화재의 반환은 소유권, 불법성 여부, 지역 여론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 지역의 유물이 왜 다른 지역에 가 있는지,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문화를 빛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번 ‘국내외 충남 문화유산 다시보기’ 칼럼을 기획하게 된 이유이다.

국내건 국외건 모든 문화재는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다만 국외로 반출된 것과 달리 국내에 있는 충남연고 문화재는 확실한 실견(實見)의 기회가 있는 것이 차이이다. 이번 칼럼을 통해 국내외로 반출된 우리 지역 문화재가 도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박진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문화유산교류협력부 선임연구원

★당신을 기다렸어요★ 요양보호사님 상시 모집!

모집기간 : 사업 종료일까지 상시모집

절.찬.공.고

신청방법

서비스원 홈페이지
채용공고 참조

문의전화

041-330-2472

채용인원

긴급돌봄지원단 요양보호사 70명 (시·군별 모집인원 상이)

근무내용

코로나19 긴급돌봄 및 코로나19 외 틈새돌봄 발생 시 대상자 자택 및 자가격리시설에 파견되어 재가, 주거, 식사 및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 제공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사람(주민등록상 충청남도 주소지인 사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 소지한 사람

공고일 기준!

근무조건

고용형태 : 계약직, 파견일정에 따라 계약 체결, 개인별 상이
근무형태 : 주간(기본), 야간(18시 이후), 24시간 / 대상자 자택 또는 격리시설 근무
보수수준 : 충청남도 생활임금, 위험수당, 교육수당, 교통비, 식비 등 법정가산수당 지급



일상생활 속 불편 바로 해결하세요

보통의 혁신가 성과 공유회 개최 담배꽂초 모으기 등 9개 캠페인

“담배꽂초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반려동물 산책 매너 지켜주세요”

충남사회혁신센터가 깨끗한 환경 만들기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충남사회혁신센터는 6월 24일 ‘보통의 나눔’ 행사를 갖고, 지역 혁신가 양성 프로그램 ‘보통의 혁신가 1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보통의 혁신가는 주민이 일상생활 불편함을 찾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보통의 혁신가 주요 활동에는 ▲해안가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꽂초를 푹뚝하게 모으는 ‘담꼬’ 캠페인 ▲쓰레기 배출시간 안내로 동네 미관을 살리는 ‘당부의 말풍선’ 캠페인 ▲부당한 근무조건에 놓이는 청소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쓰레기 배출시간 안내로 동네 미관을 살리는 '당부의 말풍선' 캠페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알게 해 주는 ‘당당’ 캠페인 ▲아파트 단지 내 ‘흡연매너 당부 KIT’ 캠페인 ▲반려견 산책 매너 알림 ‘나만 바라봐(페티켓 문화)’ 캠페인 ▲그냥 지나치는 버스를 붙잡기 위한 시각 장치 ‘버스스닷’ 캠페인 ▲방치된 동전을 모으고 사용하여 자원순환을 독려하는 ‘동전 한 컵’ 캠페

인 등 9개 캠페인이 있다. 아파트 단지 내 흡연매너를 당부하는 캠페인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진행 경과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보통의 혁신가 2기’ 모집은 7월 중순에 시작될 예정이다. /충남사회혁신센터 041-557-5048

음원 듣고 맞춤형 영상 제작하세요

플레이리스트 영상 공모전 개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콘텐츠코리아랩은 9월 27일까지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발했다. 영상 공모전은 충남음악창작소에서 발굴한 작사가와 신인 뮤지션의 협업으로 창작한 7개 음원에 어울리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영상을 발굴하는

취지로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7개 음원 중 선택한 음원을 주제로 10초 이상 움직이는 동영상 제작하면 된다. 응모 희망자는 충남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590-0906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 지원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충남도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읍·면·동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존 아동수당, 영아수당과는 별도로 지원한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2044

늘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는 예술가

세계적인 화가 고암 이응노 예술 세계

①이응노 화백의 삶과 예술여정

한국과 더불어 유럽에서도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예술가로 예우하고 있는 고암 이응노 화백은 이곳 충남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에서, 여항문인 집안의 부친 이근상과 모친 김해씨의 슬하 5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현재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 흥천마을은 이응노 화백이 나고자란 곳이자, 머나먼 타국 프랑스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워했던 영원한 그리움의 고향이었다. 2011년 홍성군이 이곳에 생가터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한 뜻도 고암의 영혼이 평안하게 머물러 쉬시길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그가 예술작품에 담고자 하였던 평화와 인류애, 민주주의 정신을 고국의 사람들과 함께 음미하며 늘 우리들과 어우러져 살아숨쉬고 있는 예술가로 선양하기 위해서다.

이번 고암 이응노 화백의 삶과 예술여정을 소개하는 칼럼에서는 한국



고암 이응노 화백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받아내었던 이 화백의 삶의 이야기와 동양과 서양 미술의 내용과 형식을 융합하여 늘 새롭고 혁신적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던 예술세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그리기를 좋아했던 어린 이응노의 이야기, 1920년대 해강 김구진 문하에서 성장한 후 독창적 묵죽화 탄생 이야기, 1935년 이후 일본 유학시기 서양 화풍에 동양화의 필묵 맛이 결합한 ‘신남화’ 양식 작품, 1945년

해방 이후 민족주의 예술정신과 한국미술 정통성 회복 운동, 1960년대 프랑스 이주 후 재료와 형식이 자유자재한 〈문자추상〉 작품시리즈, 1967년 “동백림” 사건과 옥중獄中 창작 작품, 1980년 광주민주항쟁과 작품〈군상〉 제작 이야기 등 늘 새로움을 향한 도전과 창작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노정을 그려보고자 한다. /황찬연 이응노의집 학예연구사

“안 입는 옷 버리지 마세요”

폐자원 재탄생 ‘업사이클링’

충남사회혁신센터 통해 신청

충남사회혁신센터는 찾아가는 업사이클링 체험프로그램인 ‘충격어택’ 활동을 재개한다.

지난해 도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페아크릴을 이용한 LED 명찰, 페비닐을 이용한 파우치 만들기, 페배너를 이용한 카드지갑 만들기, 옷 찌투

리를 이용한 텀블러 핸들러, 페플라스틱 사출을 이용한 자석홀더 등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는 도내 어린이, 청장년, 노인 등 연령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도내 20명 이상의 공동체면 누구나 ‘충격어택’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충남사회혁신센터 홈페이지(cnic.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충남사회혁신센터 041-557-5048

민선7기 양승조 충남지사 퇴임

제38대 도지사 퇴임식

양승조 제38대 충남도지사가 6월 30일 퇴임했다.

이날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38대 충남도지사 퇴임식에서 양지사는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두 손을 맞잡고 달릴 수 있어 한없이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실·국장 및 동료 공직자를 포함한 도민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공로패 증정, 퇴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운영지원과 041-635-3506

“장애와 비장애 차이 존중해요”

충남농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충남도내 농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과 발전을 다짐했다.

도는 6월 24일 천안한들문화센터에서 농아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충남농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농아인 권리선언 낭독

영상 및 농아인의 날 홍보 영상 상영을 통해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1997년부터 농아인의 복지와 인간존엄 및 평등구현을 위해 조선농아인협회 설립월인 ‘6’과 귀의 모양을 형상화한 ‘3’을 결합한 6월 3일을 농아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과 041-635-4271

충남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23개 직종 294명 선수 출전

충남도 내 우수 기능을 가진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충남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공주시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대회는 가구제작 등 16개 정규 직종과 건축제도 컴퓨터 이용 설계

(CAD) 등 시범직종 4개, 레저·생활 기술 직종 3개 등 총 23개 직종에 각 시군 294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다. 직종별 입상자는 상장과 상금, 메달이 수여되며, 금상 입상자는 오는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3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기술·기능 수준을 뽐낼 예정이다. /장애인복지과 041-635-4271

나라사랑 그림·글짓기 대회 개최

도내 초·중학생 150여 명 참가

충남도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5일 충남보훈공원 일원에서 ‘나라사랑 그림그리기·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도내 거주하는 초·중학생 150여 명이 사전접수 및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했다.

수상자는 ▲금상(도지사상) 6명 ▲

은상(도 교육감상) 6명 ▲동상(대전지방보훈청장상) 12명 ▲입선 및佳作(충청창의인성교육원장상) 24명 등 총 48명이 선정됐다. 대회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도가 주최하고, 충청창의인성교육원이 주관한 이날 대회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보훈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회복지과 041-635-4253

귀어인 정착 돕는 조력자 양성 권역별 1명씩 시범 운영

충남도는 귀어인이 어촌 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내 어촌 지역활동가를 양성한다.

올해 ▲보령·서천 ▲홍성·태안 ▲서산·당진 등 권역별로 1명씩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어촌특화사업 정책 이해 등 교육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041-406-7722)에 문의하면 된다. /어촌산업과 041-635-4845

떠나자 농촌마을로!

올 여름 휴가는 별빛 쏟아지는 농촌에서

충남의 이색적인 여름휴가지로 농촌체험마을과 농가민박을 소개한다. 전통한과 만들고 시원한 냇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자연 속에서 풀벌레 소리 들으며 밤하늘 별 보고 잠드는 낭만적인 여름밤까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여름휴가를 충남 농촌마을에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김혜동/khd1226@korea.kr



아산 외암민속마을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길9번길 13-2
★500년 전 형성된 고택과 초가집, 한지부채, 옛·손두부 만들기 체험, 외출타기, 투호던지기, 곤장체험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청양 알프스마을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23-35
★국내 최장 출렁다리 옆 산속마을. 칠갑산 특산물 조류박 체험. 차가운 얼음골에서 시원한 물놀이.

홍성 오서산상담마을



●홍성군 광천읍 오서길351번길 16
★오서산 등산로에 위치한 대표 장수촌. 직접 만든 손두부와 오서산 등반.

태안 매화동봉마을



●태안군 원북면 동해길 301-41
★매화마을, 황금개구리, 반딧불이 체험. 친환경 쌀로 만든 찰떡, 물놀이 체험.

논산 덕바위마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604번길 46-20
★계룡산과 황산벌이 어우러진 농촌마을. 오디·감자·옥수수 따기, 산야초 요리 등. 워터캠핑장, 생태습지 보트체험, 산림욕.

금산 수통1리마을



●충남 금산군 부리면 적벽강로 699
★적벽강 휴양의 집, 잔디캠핑장, 마을역사관. 농산물 수확체험, 천연 염색, 도자기 체험.

당진 백석울미마을



●당진시 순성면 매실로 246
★지역명사와 떠나는 랜선여행 운영. 고추장 담그기, 한과만들기 체험 등.

당진 진경원(농가 민박)



●당진시 순성면 대촌2길 111-30
★팬션, 캠핑장.

보령 은행마을



●보령시 청라면 오서산길 150-65
★야생화차 만들기, 트랙터 타고 마을여행, 인절미·은행빵·은행식초 만들기, 별보기 체험.

서천 봉하마을



●서천군 서면 서인로 1044-13
★사이언스캐슬 농촌테마파크 운영. 방향제·떡 만들기 등 체험.

푸른 바다 파노라마 장관...1800km '서해랑길' 열렸다



보령천북굴단지 일원을 걷다보면 넓은 갯벌 위로 떨어지는 서해 낙조를 볼 수 있다.



사진/충남도민리포터 '사과'

보령 천북굴단지서 개통식 열려
도내 5개 지역 56~83번 코스
제철맞은 신선한 해산물 즐기며
너른 갯벌·낙조·섬 풍경 일품

[보령]한반도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둘레길인 '서해랑길'이 열렸다. 보령시는 지난달 22일 천북굴단지 공원에서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 차관과 김동일 보령시장,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노점환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 등 주요 내빈

과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랑길 개통행사를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서해랑길 개통선언에 이어 62코스인 천북굴단지 공원에서 해안숲길 종점까지 3km에 이르는 구간에서 걷기 행사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외곽의 기존 길을 연결해 조성한 '코리아둘레길'은 총 4544km에 이르는 국내 최장 거리 걷기 여행길로 비무장지대의 디엠지(DMZ) 평화의길, 동해의 해파랑길, 남해의 남과랑길, 서해의 서해랑길로 이뤄져 있다.

이 중 가장 길이가 긴 서해랑길은 전남 해남 땅끝전망대에서 인천 강화를 연결하는 109코스로, 총 길이가 1800km에 이른다. 그 중심에 있는 보령의 둘레길은 서천과 보령의 경계인 부사방조제에서 시작해 무창포해수욕장과 오천항을 거쳐 천북굴단지 공원까지 이어지며 58코스부터 62코스까지 모두 4개 코스가 해당된다. 이날 행사가 열린 62코스에서 자리잡은 '천북 굴따라 길'은 천수만을 끼고 있어 걷다보면 푸른 바다 위로 올망졸망 자리잡은 섬이 한눈에 펼쳐지며,

아름다운 바다 위를 물들이는 붉은 노을이 장관이다. 코스 내에 천북굴단지도 조성돼 있어 제철 맞은 싱싱한 해산물로 배를 채우고 도보여행을 즐기기도 제격이다. 시 관계자는 "서해랑길 109개 코스를 대표해 보령에서 개통행사를 갖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며 "서해랑길을 통해 풍부한 해산물과 먹거리, 사계절 볼거리가 가득한 추억과 낭만의 도시 보령시를 널리 알리고 지역 대표 관광콘텐츠로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시 제공

대한민국 대표 춤축제
'천안흥타령' 9월 개막

[천안] '천안흥타령춤축제 2022'가 3년 만에 오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면 축제로 개최되는 가운데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전국춤경연대회 참가팀을 모집한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전국춤경연대회는 누구에게나 참여 기회를 제공해 대중들에게 춤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참가자 중심 경연대회이다. 올해 경연 부문은 기존 ▲일반부 ▲대학무용부 ▲스트릿댄스부이며, ▲청소년부 ▲댄스컬부 2개 부문이 신설되며 5개 부문으로 늘어났다. 댄스컬이란 댄스와 뮤지컬의 합성어로, 천안흥타령춤축제는 댄스컬 경연대회를 최초로 진행해 댄스컬을 알리고 뮤지컬 전공 학생들에게 경연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 대학교 비대면 강의로 학생들이 학교에 모이지 못해 진행되지 못했던 부대경연인 전국대학치어리딩대회도 3년 만에 다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6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천안흥타령춤축제 누리집(cheonanfestival.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문화재단 축제사업팀(041-900-7397, 73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팀은 신청서와 참가 예선 영상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예선 심사를 통해 결선 진출팀으로 선발된 팀만 현장에서 최종 결선 무대에 오를 수 있다.

/천안시 제공

여름휴가, 버스타고 오세요

관광지 순환 버스타워 운영

[당진]당진시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관광코스와 체험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출시하고 관광객 모객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관내 버스타워 중 하나인 '당진삼색주여행'은 신평양조장과 순성브루어리, 면천두견주전수회관, 면천읍성을 둘러보며 지역의 특산품과 체험을 연계한 체험형 여행상품으로, 당진탐승지점을 경유해 당진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당진당일여행'은 면천읍성과

삼선산수목원, 장고항, 솔피성지, 합덕제, 합덕성당을 코스로 아름다운 수목원과 여름 바다, 버그내순례길 등 주요 코스를 연계한 당일 여행상품이다.

광역버스타워로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바다를 둘러보는 ▲웅도 ▲왜목마을 ▲삼교호 코스와 충청남도의 읍성들을 둘러보는 ▲홍주읍성 ▲면천읍성 ▲해미읍성 코스, 아름다운 자연과 순례길을 둘러볼 수 있는 ▲버그내순례길(신리성지, 합덕제, 솔피성지) ▲해미순교성지 코스 등이 있다.

/당진시 제공

'당찬사람들' 유튜브에서 만난다

시, 인물 선정 다큐영상 제작

[당진]당진시는 올해 '당찬 사람들'의 컨셉을 '맛있는 당진'으로 정해 특별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

올해 '당찬 사람들'로 최종 선정된 시민은 ▲충남 제철과일로 만드는 수제청 이규진·노숙연 씨 ▲제과제빵 조아라 씨 ▲수제소시지 김지선 씨 ▲송산 감자청년 인승열 씨 ▲요리연구가 배명순 씨 ▲청년 낙농업 이용호 씨 등이다.

시는 올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조명하고, 그들의 고충



과 실패 및 극복 과정에 대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당찬 사람들' 영상은 오는 28일 당진시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이규진, 노숙연 부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당진시 제공

내포 어린이 물놀이장 첫 개장

[홍성]홍성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내포신도시 도시공원 내 조성한 '어린이 물놀이장'에 대한 시설점검을 마치고 오는 7월 1일 첫 운영에 들어간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신리천 공원(홍북읍 신경리 1367) 내 약 1000㎡의 규모로 조성됐으며,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합놀이대, 워터드롭, 워터터널 등 물놀이 시설을 갖췄다.

군은 개장과 동시에 안전요원 배치하고 내포 보건지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토록 운영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홍성군 제공

www.expo22.kr

GYERYONG
WORLD
MILITARY
CULTURE
EXPO 2022

2022

계룡

세계軍문화엑스포

2022. 10. 07 - 10. 23

충청남도 계룡시(계룡대 활주로 일원)

K-Military, 평화, 카네



expo22.kr

주최  충청남도

주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 ‘첫 삽’ [예산]예산군은 지난달 23일 예당관광지 문화광장에서 예당호 수변 복합 문화예술공연 공간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4억원, 수변광장 및 무대 조성 1385㎡, 놀이터 107㎡ 규모로 조성되며 수변광장에는 천연잔디마당을 갖춰 가족단위 나들이객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약 1000여명이 한 번에 공연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될 전망이다. /예산군 제공

부여서동연꽃축제 ‘100원 택시’ 뜀다

시내-테마파크 등 코스 순환
축제 기간 밤 11시까지 이용

[부여]부여군이 오는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부여 서동공원(공남지) 일원에서 열리는 제20회 부여서동연꽃 축제 기간 ‘무료 셔틀버스’와 ‘100원 셔틀택시’를 운행한다.

무료 셔틀버스와 100원 셔틀택시는 축제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군민과 관광객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동하며 축제를 관람하면서 시가지에도 들러 시내 상

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자차로 부여를 방문한 관광객들도 셔틀버스와 셔틀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지 곳곳에 연계 주차장을 마련해 놓았다.

셔틀버스는 2개 노선에 총 7대를 투입·운행한다. 행사장과 백마강 테마파크를 잇는 1번 노선과 행사장과 부여읍 시내를 연결하는 2번 노선으로 나뉘었다.

관광객이 5~15분간 별도 설치된 승강장에서 대기하면 무료로 승하차해 정해진 노선을 오갈 수 있도록 했다.

1번 노선은 행사장(동문주차장)-백

마강 테마파크-선화공원 주차장을 거쳐 다시 행사장으로 가는 코스고, 2번 노선은 행사장(동문주차장)-성요셉의원-부여중앙시장-뚜레쥬르-부여중학교-행사장에 도달하는 코스다.

셔틀택시는 2개 노선에 모두 15대를 투입·운행한다. 행사장(동문주차장)-부여박물관-정림사지-부여치과-부소산-터미널-부여시장-효공원-행사장 구간을 양방향으로 순환하는 코스다. 셔틀버스와 마찬가지로 별도 설치된 승강장에서 5분 정도 대기하면 인당 100원에 정해진 노선을 승하차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여군 제공

시간 멈춘 ‘판교 마을’ 이야기를 한 눈에

서천 판교면 일원서 이색 전시회
원주민 사진전·아카이브 기록전 등

[서천]서천군이 판교면 현암리 옛 촌담집 일원에서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공간과 사람 기획전시전’을 연다고 밝혔다.

장미사진관과 삼화정미소, 판교극장 등 이색적인 근대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판교마을 사진전

이번에 오픈하는 판교 현암갤러리(촌담집)에는 ‘공간’을 주제로 장미사진관, 삼화정미소, 판교극장 등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근대건축물과 현암바위, 우시장, 거주민 인터뷰 등 판교

마을의 근현대 역사 아카이브 기록전이 열린다.

장미갤러리(동일주조장 맞은 편)에는 ‘사람’을 테마로 지역의 쇠퇴에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판교 마을을 지켜온 지역 주민과 상인, 농민, 학생, 종교인 등 대표 판교인 33명의 사진전이 열린다. 전시 공간은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며, 방문객에게 아가자기하고 소소한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조성된다.

/서천군 제공

신두리 모래조각 체험 ‘인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
전문가 강좌·공연 등 다채

[태안]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진행되는 모래조각 체험교실이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태안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매주 토요일 모래조각 체험교실을 운영한 결과 총 38팀 183명이 참여해 정원인 회당 50명을 넘어섰고 6월 25일 프로그램 예약도 일찌감치 마감되는 등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래조각 체험교실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원북면 신두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오는 10월까지 만나볼 수 있다.

신두리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 삼아 모래조각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으며, 전문 모래조각가가 강사로

참여하고 국악·무용·버스킹 등 다양한 예술공연도 함께 펼쳐져 관광객들에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지난 3주간 열린 아티스트 참여 예술공연에는 체험교실 참가자 외에도 대회 200여 명의 관람객들이 몰리는 등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18일 체험행사에 참여한 손모(39, 서울시 광진구) 씨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를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고 싶어 방문했다”며 “이국적인 풍경도 아름답고 아이들도 너무나 즐거워해 조만간 다시 예약 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회 10팀(50명 내외)의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참가비는 무료다.

모래조각가의 노하우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가족 및 연인들에 뜻깊은 추억을 안길 것으로 기대되며 7월 해수욕장 개장 이후 더 많은 체험객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 제공

“전국 맵부심 다 모여요~!”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 부활
8월 26~28일 백세건강공원 일원

[청양]매운맛의 일번지 청양군에서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군민과 관광객들을 찾아간다.

군은 청양고추구기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명품축제로 자리잡기 위해,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2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로 문화관광 축제로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청양고추·구기자 축제는 ‘신(辛)나는 여행, 맵콤달콤 청양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청양읍 백세건강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단위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천원의 행복 ‘고추를 답아라’ ▲레드 컬러 드레스 코드 착용 방문객에게 선물 증정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그 밖에도 ▲구기자 전시관 ▲고추



지난해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 모습.

구기자 터널 및 야관 경관 조명과 포토존 ▲유명 셰프를 초대해 구기자를 이용한 음식 만들기 ▲고추·구기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군민 공모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로 지친 군민과 관광객들의 심신을 달래는 치유의 시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동곤 청양군수는 “3년 만에 직접 만나는 만큼 이전과는 차별화 된 축제로 군민과 관광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20년 전통 축제의 명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과 관광객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청양군 제공

지역단신

6쪽마늘·감자 대도시 소비자 입맛 공략

[서산]충남 서산시 대표 농산물인 서산6쪽마늘과 서산 감자가 주 출하기를 맞아 대도시 소비자 공략을 본격화했다.

시에 따르면 대도시 농협유통센터와 직거래장터,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판매에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서산6쪽마늘과 감자, 500ㄷ을 납품했고 7월 말까지 150ㄷ 이상을 납품할 것으로 보인다.

납품현황을 살펴보면 6월 1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양제, 고양, 세종, 대전 등 대도시 농협물류센터에서

서산6쪽마늘 특판전을 연다. 현재까지 약 10ㄷ의 마늘을 납품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서울 강남구청 직거래장터에도 1t의 서산6쪽마늘을 납품해 완판했다.

또한, 같은달 26일에는 이마트에브리데이 6t, 30일은 안성 농협물류센터에 3t의 마늘을 납품 했다.

감자는 6월까지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에브리데이’와 ‘노브랜드’에 추백, 조풍 품종 약 33t을 납품 중이며, 수미 품종의 추가 납품도 협의 중이다. /서산시 제공

논산시, 제32회 충남 민속제전 종합우승

[논산]지난달 25일 금산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2회 충청남도 민속대제전에서 논산시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줄다리기와 널뛰기에서 우승, 단체 줄넘기에서 준우승, 팔씨름에서 3위를 차지함으로써 우승을 굳혔으며, 논산문화원이 적극적으로 선수를 선발하고 연습을 실시한 결과로, 이번 대회는 폭넓은 연령층이 참가하여 우리의 전통 민속을 겨루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참가한 선수들이 제기차기,

투호 등의 민속놀이를 통한 경기를 펼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전통놀이를 계승하는 뜻 깊은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선수로 참가한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주성철 팀장은 “어릴 때 자주 즐겼던 민속놀이이지만 시간이 흐르며 잊고 지냈는데, 경기에 참가함으로써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다녀온 느낌이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 2019년에도 각 종목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며 종합 2위에 오른 바 있다. /논산시 제공

‘학교숲’ 학생 휴식공간으로 각광

[예산]예산군이 관내 오가초등학교, 구만초등학교, 초립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숲을 만드는 사업으로 녹지 확충을 통한 학교의 생활환경 개선 및 청소년에게 자연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해 자연 친화적인 태도와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개 학교에 6000만 원을 투입해 학교숲을 조성해 왔다. /예산군 제공



니얼굴의 블루스

내포칼럼



전 우 영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제주도의 눈부신 풍광만큼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등장하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이 드라마에는 세 가지가 있다. 아픔, 따뜻함, 그리고 놀라움.

아픔 - 인생은 절대로 우아하지 않다. 삶은 힘겹고 쓰라리다. 모두에게는, 형태는 다르지만, 자신만의 상처가 있다. 서울대에 진학해서 심심한 제주를 떠나고 말 거라던 전교 1등 영주(노윤서)에게 들이닥친 임신이라는 사건. 매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리아카로 얼음을 날라도 홀로 키운 영주에 대한 자랑으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던 호식(최영준). 자식이 서울대에 입학하면 낚시나 하며 살겠하던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친구의 아버지에게 재취로 들어간 어머니 옥동(김혜자) 때문에 생긴 동석(이병헌)의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처럼 굼고 터지기를 반복한다. 그리고 동석의 아물지 않는 상처는 분노가 돼서 옥동을 향한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아픔이다.

따뜻함 -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고 기대를 한다. 하지만 그 희망과 기대가 거부되거나 좌절되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는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걸었던 희망과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호식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주뿐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동석이 옥동으로부터 상처받은 이유는 옥동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는 사람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다. 인생에서 우리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결국, 가족이고, 친구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할 때 가장 아프다. 호식의 상처는 영주로 인해 아물고, 동석의 상처는 결국 옥동으로 인해 위로받는다. 우리들의 블루스의 제주가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따뜻함이다.

놀라움 - 영화는 다운증후군이었다. 배우가 다운증후군을 연기한 게 아니고, 실제 다운증후군인 영화가 등장했다. 첫 번째 놀라움.

영화가 그린 그림들. 개성과 매력 이 있는, 프로의 솜씨가 보이는 그림들이었다. 당연히 드라마를 위해 그림을 대신 그려준 사람이 있을 거로 생각했다. 심지어는 너무 잘 그려서 다운증후군인 사람이 그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기에, 그림들이 드라마에 대한 몰입을 방해했다. 하지만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알게 됐다. 다 정은혜 작가가 실제로 그린 그림들이라는 사실. 두 번째 놀라움. 이번에는 충격과 함께.

서동일 감독의 <니얼굴>을 봤다. 정은혜 작가의 일상과 성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다운증후군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사람 덕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자주 웃을 수 있는지. 다운증후군, 그리고 더 넓게는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은 얼마나 형편없었던 것인지. 세 번째 놀라움. 이런 놀라움을 안겨 준 <우리들의 블루스>와 <니얼굴>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드라마로 보는 우리내 ‘삶’

아픔·따뜻함·놀라움 ‘공감’

가족 간 불거진 갈등·원망

이웃의 위로로 끝내 회복

실제 다운증후군 환자의 열연

장애인 고정관념·편견 극복

미물 덕분에 알게 된 것들

I 공공의료원 칼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 유행을 일으키기 전인 21세기 첫 10년까지, 항생제는 물론 항바이러스 약물까지 개발한 인류는 대부분의 감염병을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다.

21세기 들어 두 번째 십 년이 지나자 마자, 바이러스의 기습이 예상 밖으로 거세게 일어났다.

코로나-19가 한창 극성을 부리던 2021년 7월에서야 우리나라에 처음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세워졌다. 무조건 환영한다. 아무리 늦더라도, 그리고 소를 잃어버린 뒤라도 우리는 외양간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방역은 성공적이고 바람직한 방벽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었고,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가운데 새롭게 드러나는 선진국의 위상을 얻은 것도 사실이다.

사실 온 세상이 생전 처음 겪는 재난이었기 때문에 허둥대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역시 완벽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적어도 두 가지 사실만큼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가 세계적 유행의 방역 대책은 국가가 맡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 나라에 유용한 공공의료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그 나라의 여러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료원을 여러 개 새로 짓는 게 우선이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를 효율적인 조직으로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본다. 공공의료 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영역을 맡아야 하며, 수익이 아니라 공익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겪으면서 우리들 중 어느 누구라도 살아 남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인류 공동의 재난을 이제 모두 함께 극복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백신의 부작용을 부풀리고 괴담을 퍼뜨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만 살아 남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느 누구도 살아 남기 힘든 생각임을 알게 되었고, 경쟁을 통한 성취가 아니라 협동을 통한 성취가 우리 모두를 뿌듯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다.

내가 수동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함께 성공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를 흐뭇하게 해준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 어떠한 재난도 결국엔 시련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우리가 겪었던 재난과 대처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잘 정리해 놓으면,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



이 경 석
천안의료원장

K리그에 ‘충청권 derby’가 온다

생생현장리포트



최 영 민
천안신문 기자

축구를 좋아하는 충청권 팬들을 설레게 하는 소식이 최근 잇따라 날아들었다. 최근 K3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충북 청주FC와 충남의 천안시축구단이 내년 시즌 프로축구 K리그2에 참가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청주의 경우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를 통해 연맹 가입이 최근 승인됐다. 감독도 프로에서 잔뼈가 굵은 최윤겸 감독을 선임하면서 내년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천안은 어떠한가. 6월 3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가입서류를 제출하며 프로팀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을 밟았다. 이제 연맹에서 서류 검토 후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으면 천안 역시 프로팀으로서 2023 K리그2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들 두 팀이 프로팀이 된다면 꼭 만나야 하는 상대가 있다. 바로 현재 K리그2 소속인 충남아산FC다. 열악한 환경임에도 최근 리그 5위까지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충남아산FC와 천안시축구단, 그리고 청주FC의 만남은 지역 축구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리그의 ‘흥행카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지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30분~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권도 겹치는 경우가 잦은 게 이들 세 도시 간의 관계다. 특히 천안과 아산은 그동안에도 묘한 경쟁의식을 가졌던 도시였다. 현 KTX 천안아산역의 명칭을 정할 당시에도 상당한 갈등을 빚었고, 최근에는 천안 백석동에 위치한 폐기물소각장으로 인해 아산시 음봉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일도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쌓이는 동안 천안과 아산 양 시민들이 느끼는 라이벌 의식은 더 높아졌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스포츠를 통해 분출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우리는 국가대표 축구 한일전을 통해 일제강점기 때 가졌던 일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승리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한다.

천안과 아산, 그리고 청주. 각각 충남과 충북을 대표하는 도시들이면서 각각의 시민들 역시 공통점이 많은 도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도 분명 존재한다. 프로축구 무대에서 이들의 경쟁의식이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K리그에는 FC서울과 수원 삼성의 ‘슈퍼매치’, 울산현대와 포항스틸러스의 ‘동해안 derby’, 포항스틸러스와 전남드래곤즈의 ‘제철가 derby’,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의 ‘현대家 derby’ 등 흥행요소들이 많다. 여기에 충청권 세 팀이 펼칠 이른바 ‘충청derby’가 더해지면 프로축구의 흥행은 이전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충청derby’가 K리그 최고의 흥행카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자.

개미도 노래를 부른다

소중에 문학관의 책들(1)



소 중 애 동화작가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61 ‘소중에 문학관’에는 내 동화책 195권이 전면을 보고 전시되어 있다. 195권의 지식 같은 책이 있으니 한 권 한 권 읽힌 이야기 또한 많다. 그중에서 골라 이야기하려고 한다.

1984년에 나온 ‘개미도 노래를 부른다’ 단편집은 내 첫 책이다. 자비출판으로 4000권을 찍었다. 황당한 계산은 아니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 아버지 근무하시던 학교, 언니 근무하던 학교 학생수를 합하면 만이천 명 가량 되니 1/3 을 잡은 것이다. 오만함도 가득했다. 재미있고 예술성 뛰어난 책이니 금방 재쇄 찍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5월의 어느 일요일 아침. 책이 배달 되었다. 나는 기절할 뻔했다. 4000권이라는 책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 1톤 트럭으로 싣고 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양에 온몸이 떨렸다. 겁이 났다. ‘내가 무슨 짓을 한거야?’ ‘저 많은 책을 어떤 담?’ 단칸 방에 다 쌓을 수도 없는 양이

었다. 담임하고 있는 교실과 아버지가 근무하시던 교장 관사에 나눠 쌓았다.

그런데 책이 팔리지 않았다. 오만한 기대가 산산 조각이 났다. 나도 못 팔았고 아버지와 언니도 못 팔았다. 친구가 옆학교 자모회장였는데 팔아 주겠다고 10권을 가져갔는데 곧 대금을 가져왔다. 책을 팔아서 처음으로 돈을 번 것이었다! 나중에 친구네 놀러 갔더니 내 책 ‘개미도 노래를 부른다’가 장롱을 고이고 있었다.

그 많은 책들을 어떻게야 할지 몰라 갹갹 거리다가 우리나라 모든 아동문학가들께 한 권씩 보냈다.

책을 받은 많은 선배들이 격려의 편지를 보내 주셨고 나를 기억해 주었다. 소중애라는 기억하기 쉬운 이름 덕도 보았다.

‘세상에 나쁜 경험은 없다.’ 생애 첫 책이니 출판기념회를 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 예식장을 빌렸는데 아버지가 한숨을 깊이 쉬셨다.

“예식장에서 결혼이나 하지 무슨 글을 쓴다고.”

첫 출판기념회 하면서 중압감도 많이 느꼈다. 놀라움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이 분들을 실망 시키면 안되는데. 잘 써야 하는데.’

그 중압감 때문에 소년동아일보에서 청탁받은 6장짜리를 쓸 때는 수십장을 버리고 찢으며 완성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동화 연재를 하게 되었다.

승복 자락에 담은 불심...서산 ‘승무’ 맥 잇는다

심화영승무보존회와 12명 단원들

충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 지정

서산시 문화회관 공연 성료



심화영 승무보존회의 고행승무.

[서산]지난달 23일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에 는 폭우를 뚫고 많은 시민이 ‘제23회 심화영의 전통춤’을 관람하기 위해 자리를 메웠다.

2022년 서산시문화예술진흥사업 일환으로 빠 른 동작을 절제하고 담백한 마음의 표현이 춤과 일치하는 이번 공연은 심화영승무보존회의 심화 영류 승무를 비롯하여 고가신조 ‘북천이 맑다커 늘’과 창작무용 여화청춘, 판굿 농악 놀이 등이 선보였다.

2000년 1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 정된 심화영류 승무는 다른 류의 승무와는 다르 게 서서 시작을 하며 엄불장단이 6장단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특히 심화영의 오빠인 심재덕 선생과 성명 미상의 방 씨에 의해 완성된 심화 영류 승무는 아직 무대화되지 않은 1930년대 고 형의 승무로 서산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중 하 나다.

이날 공연에서 조선의 시인 겸 문인인 임제가 첫눈에 기녀 한우에게 반하여 마음을 전한 고가 신조 ‘북천이 맑다커늘’과 남자와 여자의 청춘

을 노래한 무용 여화청춘은 사물 악기와 장혜령 씨의 태평소 연주에 맞춰 곳거리 자진모리장단 에 맞춘 남녀가 사랑 춤을 추며 무대를 사로잡 았다.

발로는 땅을 놓고, 손으로는 가락을, 머리는 상 모를 돌리며 하늘을 논 농악의 백미 판굿은 화려 한 개인 놀이와 다양한 가락이 춤과 어우러져 객 석을 쥐락펴락했다. 특히 여성 무용수의 화려하 고 경쾌한 경고춤, 신명 나는 소고춤이 뜬쇠예술 단(단장 이권희)의 역동적인 장단과 중고제가무 악단 ‘심’ 박경진 씨의 입담 넘치는 답소 등이 어우러져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한편, 2009년 작고한 심화영 선생의 맥을 이어 가기 위해 2000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 로 지정되면서 ‘심화영승무보존회’가 창단됐고, 그 중심에 선생의 외손녀 이애리 전수조교를 비 롯한 이수자 6명, 전수자 5명 등 원년 멤버들이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심화영류 승무의 명맥 을 이어가고 있다.

서산시대/최미향 기자

‘백제 어울 마당’ 공연 인기 몰이

매주 토요일 1시, 3시 두차례

[부여]1500년 전 혼란의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강 국이 되었음을 선포한 무령왕의 일대기를 다룬 ‘2022 백제어울마당’ 공연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25일 무령왕릉 대표소 일원에서 개막 된 공주시의 대표적인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인 백제어울마당은 1500년 전 혼란의 시기를 극 복하고 다시 강국이 되었었음을 선포한 무령왕 의 이야기로, 실력 있는 전문 배우와 출연진들 을 기용해 더욱 완성도 높은 창작공연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무령왕의 일대기를 다룬 ‘2022 백제어울마 당’ 공연은 특집방송이라는 설정으로 MC의 진 행과 백제시대를 재현하여 현재와 과거를 넘나 들며 촬영이 진행된다.

‘오비야우라’의 동굴에서 시작된 무령왕의 탄 생 스토리부터 그 시대 백제병사들의 모습과 백 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무령왕의 갱위강국 선 포까지 한편의 역사극이 펼쳐지며 관람객들은 백제시대로 빠져들게 된다.

올해 7회째를 맞는 백제어울마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시 두 차례 진



‘갱위강국 왕에게 가다’ 연극의 한 장면.

행된다.

다만,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휴시기 간에는 운영이 중단되며 백제문화제 기간에는 연장 운영한다.

금강뉴스/신용희 기자

‘추억의 교과서’ 한 자리에

청양군 정산도서관 기획전

광복~1970년대까지 280여권

[청양]“그때 그 시절 교과서를 보면서 옛 추억 을 회상해 보세요.”

청양군이 7월 17일까지 정산도서관 1층에서 ‘그 때 그 시절, 추억의 교과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교과서 전시회에서는 광복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옛 교과서 영인본(복제본) 282권 이 전시되며, 시대별 교과서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옛 교과서를 교수요목기(1945~1954년), 제1차 교육과정(1954~1963년), 제2차 교육과정 (1963~1973년) 등 시대·과목별로 구분해 교과서 의 역사를 알기 쉽게 준비했다.

자세히 보기

관람객들은 부담 없이 옛 교과서를 직접 만져 보고 읽어볼 수 있다.

정산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어른 들은 학창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고, 학생들은 교육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이번 전시 외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 일에는 대출 권수 2배 확대(5권→10권), 자료실 운영시간 연장(오전 9시~오후 8시) 등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는 만큼 많은 이용 부탁드린 다”라고 말했다.

/청양군 제공

수북정에서 읽는 백마강 노래

I윤성희의 만감萬感

물안개를 두른 수북정은 부여 8경의 하나다. 정갈하게 닦아놓은 이곳 수북정 마루에 앉아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를 내려다본다. 이 물줄 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은 전라북도 장수 군 신무산 어디쯤이 될 것이다. 거기서 발원 한 시냇물이 여기저기 골짜기의 물을 만나 합 류하고 몸을 불려 곧나루에 부딪치면서 이름 도 아름다운 비단강(錦江)을 이룬다.

그리고 이 물길은 다시 부여에 이르러 부소 산을 감돌아 흐르는데 이곳 16km 구간, 수북 정 규암 나루터쯤까지는 특별히 백마강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흐른다. 옛 왕도의 안부를 묻 고 나서 무거운 몸을 뉘쳐며 곡류하던 강물이 기별포에 당도해 서해 바닷물에 몸을 섞을 때 까지 강물의 이름은 다시 금강이 된다.

금강의 특정한 구간만을 일컫는 백마강. 유 장한 흐름을 이어가지만, 꺾이고 꺾인 곳마다 한 시대 흥망성쇠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역사

의 기쁨과 슬픔이 지금은 온데 간 데 없어도 강물만은 백제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터. 수북정 바로 밑에 있는 시비의 주인 공인 황일호(黃一皓) 역시 이곳 백마강에서 흘 러간 역사의 한 장면을 건져 올리고 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충절이었던 지소(芝所) 황일호(1588~1641) 선생은 병자호란 때 삼전도 화친을 끝까지 반대하던 대표적 주전 파였다. 청나라를 배척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끝내는 청나라 병사에게 피살되었다. 그가 한 때 고향 백마강변에 은거하며 쓴 ‘백마강가 (白馬江歌)’라는 국문단가에서 이렇게 노래하 고 있다.

“흥 다하고 슬픔 오니 이 마음 둘 데 없다/ 의자왕의 풍류를 어디에서 조문할까/고란사 어렵풋하니 고란사 보기 싫다/백마강에서 낚 인 용아, 문노라 고국 흥망을.”(6장)

황일호에게 백마강은 강물의 물성뿐인 그냥 강이 아니었다. 물리적 공간인 강은 역사적 공간이 되었고 그것이 다시 정신적인 공간으



로 내면화되었던 것이다. 당나라로 끌려간 의 자왕의 비애를 떠돌았던 그에게 청나라에 무 릎을 꿇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또 한 번의 치욕이었다. 그리하여 그 수치에 대한 항거는 역사의식을 지닌 선비가 걸었을 당연 한 길 아니었을까. 수북정에 앉아 바라보는 백마강 흐르는 물은 오늘따라 처연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윤성희(문학평론가)

충청인의 詩香

자전거 뒷자리

아버지는 짐자전거에

닭과 달걀을 싣고

오일장에 가셨지

우리는 신나는 날

뉘엿뉘엿 지는 해가

바깥자국 팬 길로 마중을 간다

어디쯤 오셨나

어스름이 한 걸음 한 걸음

모퉁이를 터놓을 때

자전거가 아버지를 태워 오고 있다

노랫가락이 폐달에 쟁쟁 돌아가면

뒷자리에 걸어놓은 사탕 봉지가

사락사락 박자를 맞췄다

밤공기에도 박하 향이 섞였던가

하늘 가득 달콤한 별빛이 흘렀다

뒷자리에서 새끼줄 묶인 채

말미하는 고등어는 그 저녁의 별미

석쇠 뒤집을 때 튀는 불티가

건넌마을 불 켜진 창이 될 때

굴뚝 연기는 세상 밖으로 나와

뿌연 한 지붕 되었지



박 춘 희 시인

·시인, 우보민태원기념사업회장
·서산문화예술연구소 대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문화 행사 ‘풍성’

[보령]충남 보령시는 이달 16일부터 8월 15일까 지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제25회 보령머드축 제와 함께 열리는 해양머드박람회 등에 맞춰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예술 행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박람회 개막일인 16일 대천해수욕장 특 설무대에서 유명 K-팝(POP)과 트로트 가수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으로 ‘MBC 특집 콘서 트’를 연다.

또 박람회 기간 2022 대한민국 서각 대표작가 전, 보령·울진 간 미술 교류전, 제5회 가락의 향연 라이브 콘서트, 보령·대전 서구 간 미술 교류전, 제20회 전국 시조 경창대회, 가족뮤지 컬 라퐁젤 등 공연을 진행한다.

8월에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보령을 찾아 녹화방송을 한다. /보령시 제공

아산충무병원, ‘김미혜 초대전’

아산충무병원 이지갤러리가 개관 2주년을 기념 해 김미혜 초대전을 개최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닐 다’전에서 사계(四季)를 담은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아산충무병원의 문화센터에서는 문화센 터 개관행사로 7월 1일 음악회를 개최한다. 김 요성 예술감독 아래 클래식, 재즈, 팝페라 등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

이지갤러리는 올해, 분기별로 초대 작가를 선 정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점차 지역 작가와 젊은 작가들의 전시공간으로 확대 운영해 지역 문화 예술 활동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할 방 침이다. 온양신문/이혜진 기자

충남도경

발행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창 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주 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안 내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뻔한 건 가라”...눈부시게 아름다운 인생의 봄날 ‘한 컷’

이색 장수사진 프로젝트 눈길
서산 예술인 모여 재능 기부

[서산]이색 장수 사진 프로젝트 ‘내생애봄날’이 서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조용히 스며들게 하고 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상수(上壽)를 맞으신 100세 어르신과 주인공 세명이다. 상수는 하늘이 내려준 나이로 올해 100세 이튿날 이쁜 서재에 할머니를 비롯한 87세 이순임 할머니, 올해 딱 80이신 김순기 할머니, 함께 출연 해주신 서산 변화로 남양여관 주인장 이신 76세 가구현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관계자 말에 의하면 “지난달 22일 촬영에 이어 그 두 번째로,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세월의 자태를 아름답게 남겨드리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또 “특히 오늘이 내 생애 봄날이라 할 만큼 쫄 이쁘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고자 기획하게 됐다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벗어났다. 빈티지하고

데 반응이 상당히 뜨겁다”고 했다.

유난히 습한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특히 의미있었던 것은 세월의 산증인 100세 모델 서재에 할머니의 촬영이었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 훈훈함



화려한 스타일이 특징인 내생의 봄날 프로젝트.

을 더해줬다.

내생애봄날 김은혜 대표는 “두번째 촬영도 무사히 마쳐서 너무 기쁘다. 무엇보다 원도심에서 촬영하게 돼서 뜻깊고, 산증인이신 100세 할머니님과 함께해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모든



어르신들에게서 해맑은 소녀감성의 모습들이 사진에 잘 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2회에 걸쳐 촬영된 내생애봄날 재능기부프로젝트는 감동하신 분들을 통해 후원이나 함께 하고픈 분들이 점점 많

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동기획자 김은혜 정주는 씨네 “둘이서 좋은 작품을 위해 특히 리허설을 많이 해본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다. 영상 담당 박훈 선생님은 매번 평택에서 오시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오신다”며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결과가 아주 좋다. 내생애봄날은 서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초청과 섭외가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기뻐했다.

현재 전)댄스학원 원장이었던 김은혜 대표는 서산시생활체육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진전공 정주는 총괄디렉터는 봄날빈티지살롱을 운영한다.

재미있게 사는 그녀들은 사진과 패션, 댄스,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로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내생애봄날 재능기부프로젝트가 무사히 10년 100년 그후로도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귀뻐했다.

서산시대/최미향 기자

“당진에서 제2의 인생 꿈꾸요”

연극배우 조용정 씨 당진서 활약
친환경 화장품으로 창업 준비

[당진]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이 있다. 학창시절 우리는 소위 ‘인(in) 서울’을 꿈꿨고, 성인이 되어서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로, 큰 대도시로 향한다. 꿈을 이루려면 서울로 가야만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조용정(29·읍내동) 씨는 “아니다”라고 답한다. “우리는 보통 도시로 가야 여러 기회가 오고 선택지가 넓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 당진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었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이뤄가고 있어요. 지역이어서 오히려 경쟁이 치열한 대도시권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기회의 문이 더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5년여 전 서산에서 당진으로 온 조용정 씨는 지난해 7월 극단 문화예술창고 마주(이하 극단 마주)에 입단해 연극배우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는 약 1년의 시간 동안 여러 작품에 참여하며 경력을 쌓았다. 처음 배우로 참여한 작품이 포럼 연극 <단호박>이다.

이 작품은 당진시와 협업해 추진한 인식개선 교육극으로, 귀농한 젊은 부

부와 기존 지역주민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갈등 상황을 풀어냈다.

용정 씨는 연극배우의 삶 외에도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예비 청년사업가로서 친환경 화장품을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5년 전 처음 당진에 와서 하고자 했던 게 소이캔들과 디퓨저 관련 사업이었는데 당시 시장이 이미 레드오션이었기에 더 추진하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다 화장품 회사에 패키지 디자이너로 참여하면서 화장품 시장에 매력을 느껴 다시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용정 씨는 당진청년타운 나래에서 지원하는 청년 CEO-100 양성과정에

참여, 100% 천연원료를 이용한 제로웨이스트 샴푸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용정 씨는 “내가 살던 곳에서는 이런 지원 사업이 많지 않았다”면서 “당진청년타운 나래를 통해서 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과 멘토링도 받으면서 맨 땅에 헤딩하지 않아 좋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1차 시제품이 나왔고 향기 등을 보완해 상용화 제품을 생산하려고 한다”며 “올 10월 즈음 회사를 설립하면 본격적으로 제품이 출시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샴푸바 외에도 친환경을 콘셉트로 다양한 화장품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많은 청년들이 꿈을 위해 당진을 떠난다. 용정 씨는 반대로 당진에서 꿈을 찾아갔고, 그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던 그는 디자인회사를 다니다 퇴사하고 우연한 기회로 프리랜서 성우와 유튜버 활동을 시작했다.

당진 홍보 영상에서 내레이션을 맡았고, 배우·진행자로 출연하기도 했으며, 유튜브에서는 곳곳에서 들어온 제보를 확인하고 소개해주는 MC도 했다. 이 활동들이 연이 돼서 극단 마주에 입단하게 됐다.

용정 씨는 “당진에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기회의 땅인 당진에서 충분히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꿈 꾸고 있는 것을 펼쳐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2022년 충청남도 지역 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당진시대/임아연 기자



김기자 노래교실강사 첫 음반발매

‘청양 사람아’ 등 3곡 수록

[청양]충남 청양군에서 노래교실 강사로 왕성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기자(62·사진) 씨가 청양사람아 가득 담긴 첫 음반을 발매하고 지역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 씨의 음반에 수록된 3개의 곡은 이미 13개 방송국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방송에도 나오게 됐다.

음반 수록 곡은 ‘장곡사 가는 길’, ‘당신은 잘 될거야’, ‘청양사람아’ 등 3곡으로, 특히 ‘청양사람아’는 남편인 정범순(전 장평중교장) 씨가



가사를 직접 써 곡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또 ‘장곡사 가는 길’은 작가(시인)가 작사를 맡아 청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랫말에 담았고, ‘당신은 잘 될 거야’는 코로나19로 치친 일상과 경기침체에서 ‘힘을 내자’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김 씨는 “기회가 된다면 공연 등을 통해 청양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청양신문/김관용 기자

“소방관님 감사합니다”

태안소방서, 여행객 분만 도와

[태안]태안소방서(서장 김상식)는 충남소방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태안소방서 구급대원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달 13일에 올라온 칭찬글의 주인공은 태안소방서 안면119안전센터 소속 김기오 소방교와 문병운·설민규 소방사다. 글쓴이 장아무개 씨에 따르면 지난 달 11일 임신한 아내와 휴양차 태안으로 여행을 왔다가 오전 3시경 갑작스

러운 진통에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연고지인 전주까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고, 마침내 건강한 아기를 순산할 수 있었다.

이에 장 씨는 “항상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새겨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글을 마치며 감사의 마음과 따뜻한 다짐을 전했다.

주간태안신문/이민영 기자



사서들의 서재



<너의 이름은 - 신카이 마코토
대원씨아이/2020>

잊혀진 이들에게 바치는 진혼곡

시골 마을에 사는 소녀 ‘미츠하’.

그녀는 가문의 풍습을 지키고 사는 고리타분한 삶에 지겨워하며 도시를 향한 동경심만 키우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츠하는 자신이 소년인 것을 꿈꾸는데, 마침 도쿄에 살던 소년 ‘타키’ 또한 시골 마을의 소녀가 되는 꿈을 꾸는다.

그리고 꿈에서 깨면 그 기억은 사라지는 기묘한 경험을 한다. 반복되는 신기한 꿈에 위화감을 느끼는 두

사람은 이윽고 자신들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바뀌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두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신카이 마코토는 ‘별의 목소리’, ‘초속 5센티미터’ 등으로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소설가이다. 작가의 작품적 특징으로는 신비롭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독보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데, ‘너의 이름은.’이란 제목에서도 독자에게 작품의 여운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사적 표현을 찾을 수 있다.

바로 구두점의 존재이다. 끝이 의문문(?)이 아닌 온점(.)으로 표기함으로써,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라는 의미와 ‘너의 이름은 잊어버렸다.’라는 의미, 그리고 ‘너의 이름을 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등 독자에 따라 결말을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수사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다음으로 본 작품에서 가끔 언급되는 ‘무스비(むすび)’란 단어이다. 우

리말로 ‘잇는다’라는 뜻인데, 두 주인공은 몸이 뒤바뀔 때마다 하지 말아야 행동들을 핸드폰이나 몸에 낙서로 기록하는 등 유치한 다툼을 벌인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행동들이 서로의 기억 속에 남으려는 이 소설의 복선이자 관통하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현실과 꿈의 모호함 속에 슬픔과 기쁨을 잊으며 살아간다. 이 책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위로를 던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유재열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도민 대표 사명감 잊지 않을 것” 제12대 도의회 개원

4일 개원식...성공 운영 다짐
“충남 지역현안 해결에 집중”

충남도의회는 4일 제12대 의회의 개원식을 열고 충남의 더 큰 미래를 열기 위해 화합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조길연 의장 등 12대 의원 48명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도·교육청 간부 등 120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은 국민의례와 의원선서, 개원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의회는 개원식에 220만 도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미를 담으면서도, 겸손하고 내실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조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은 다르지만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 동행하고 있음은 변함이 없다”며 “충남도의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이 바르게 나아가



지난 4일 열린 제12대 의회 개원식에서 도의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다하되, 소모적인 갈등이 아닌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며 “지역과 당적을 초월해 마흔여덟 명의 의원이

도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남의 도약과 현안 해결에 힘을 모어나가자”고 말했다.

도의회는 개원식 이후 의회 1층 로

비에서 축하연을 열고 성공적인 12대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와 사무처, 집행부 모두 화합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제12대 전반기 의장단 당선 소감

“도의회 위상과 신뢰 한층 높여갈 것”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길연 의장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조길연입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에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임에 틀

림없지만,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막중한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저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함께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의 뜻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은 물론 견제와 균형,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도의회 전체의 위상과 신뢰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바라는 도민의 간절한 바람을 확인했습니다.

도민의 민심을 엄중히 마음속에 새기고 제12대 충청남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도민 여러분께 안겨드리고 충청남도가 당면한 현안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정사에 길이 남을 제12대 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내 주신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을 세워나가며, 도민 여러분께 환영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2대 의회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기 상임위원장 6명 선출

기경위 김명숙·행문위 김옥수

복합위 김응규·농수위 정광섭

안전소위 김기서·교육위 편삼범



김명숙 의원



김옥수 의원

충남도의회는 제12대 전반기 의회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제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를 마쳤다.

선거 결과 국민의힘 소속 4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의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획경제위원장은 김명숙 의원(청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문화위원장은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이 각각 46표, 45표를 받아 당선됐다.

복지환경위원장은 44표를 받은 김응규 의원(아산2, 국민의힘)이, 농수산해양위원장은 45표를 받은 정광섭 의원(태안2, 국민의힘)이 선출됐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위원



김응규 의원



정광섭 의원



김기서 의원



편삼범 의원

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이 각각 45표, 30표를 받아 위원장에 올랐다.

당선된 상임위원장들은 도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과 도정 발전을 위한 감시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협치·소통·전제 주력”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복만 제부의장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부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명 받들어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을 잊지 않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견제와 협치 속에 모범적인 의회 상

“구석구석 현안 꼼꼼히 챙길 것”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김복만 제부의장님을 비롯한 제12대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충청남도의회 부의장이라는 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의 대

표로 입성하신 우리 의원님들 말씀 한마디 한 마디 도민의 목소리로 알고 경청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결집하여 제12대 도의회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구석구석 꼼꼼히 챙기고 소외되는 부분 없이 최선을 다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도민행복을 위해 충청남도의회가 순항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센 충남’과 협치하는 의회로

지난 4일 열린 제12대 의회 개원식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조길연 도의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떡 케익을 썰며 협치를 다짐하고 있다.

2022.
7. 20.(수)~
7. 24.(일)

보령요트경기장



2022 아시안컵 보령국제 요트대회

7월에 대천앞바다를 수놓을
바다의 향연에 초대합니다.

대회종목

킬보트종목(J70급-국가대항전),
딩기종목(옵티미스트-오픈)

주최 충청남도요트협회
주관 보령국제요트대회조직위원회

